

“복음은 생각이 아니라 실천이며, 신앙은 고백이 아닌 삶...”

■ 오방 최흥종,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② 사람을 살리는 것이 신앙이다

한 인간의 변화가 한 도시를 바꾸다

광주의 역사는 단지 시인의 역사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눈물, 희망과 현신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기억의 역사이다. 그래서 한 도시를 이해하려면 그 도시가 기억하는 사람들을 살펴봐야 한다.

광주에는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있다. 독립운동가가 있고, 민주화운동의 주역들이 있으며, 교육과 문화 발전에 기여한 수많은 선각자들이 있다. 그러나 광주의 정신적 유산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바로 오방(五放) 최흥종 목사이다.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그의 이름은 다소 낯설 수 있다. 그러나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최흥종은 광주 시민들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그는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고, 큰 재산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누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사람들의 곁에 머물렀던 사람이었다. 그는 한센병 환자의 친구였고, 결핵의 아버지였으며, 가난한 이들의 이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광주의 성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최흥종의 삶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곧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2026년 7월 창간 27주년을 맞는 미션리, 올해로 서거 60주년을 맞는 '광주의 아버지' 오방 최흥종 선생의 일대기를 4회에 걸쳐 게재한다. /글=이탁행 본지 주필



오방 최흥종 선생

최흥종의 사역과 실천

지난 회에서 우리는 최망치라 불리던 한 청년이 어떻게 오방 최흥종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최흥종의 삶은 회심에서 끝나지 않는다. 진정한 신앙은 변화된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나타난다. 복음은 생각이 아니라 실천이며, 신앙은 고백이 아니라 살아내는 삶이기 때문이다. 최흥종은 평생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다. 그는 설교보다 먼저 행동했고, 주장보다 먼저 실천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언제나 가장 약한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다.

마련해 주었다. 그에게 가난한 사람은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었다.

오늘날 복지제도가 존재하는 시대에는 당연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영역을 한 사람이

다. 오늘날에도 한센병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지만 당시 상황은 상상 이상이었다. 한센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추방당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마저 인정받지 못했다. 사람들은 병보 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 그러나 최

다. 그래서 그는 한센인을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으로 대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교육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최흥종은 구제 활동만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

주가 교육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선각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교육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최흥종은 이미 한 세기 전에 그것을 알고 있었다.

YMCA 운동과 공동체 정신

최흥종은 개인의 경건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신앙을 추구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YMCA 활동이다. YMCA는 단순한 청년단체가 아니었다. 신앙과 교육, 시민의식과 사회개혁을 함께 고민하는 공간이었다. 최흥종은 YMCA를 통해 건강한 시민을 세우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헌신했다. 그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을 원하지 않았다.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앙을 원했다. 기도와 행동이 분리되지 않는 신앙. 예배와 삶이 연결되는 신앙. 최흥종은 그러한 신앙을 몸소 실천했다.

공공신학의 선구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공공신학'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교회가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신학이다. 그러나 최흥종은 이 개념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공공신학적 삶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는 교회를 사회와 분리하지 않았다. 신앙을 개인의 문제로만 축소하지 않았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다. 가난한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 주목해야 할 부분도 바로 이것이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세상 속에서 증명된다.

왜 사람들은 그를 성자라고 불렀는가

최흥종은 성자가 되려고 한 적이 없다. 그는 단지 복음을 따라 살려고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삶을 보며 감동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말보다 삶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는 설교한 대로 살았다. 믿는 대로 행동했다. 사랑을 말하기 전에 사랑했다. 섬김을 말하기 전에 섬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광주의 성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흥종이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 역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는 다른 선택을 했다.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더 낮은 곳을 선택했다.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많은 나눔을 선택했다. 그 선택이 한 사람을 바꾸었고, 공동체를 바꾸었으며, 결국 한 도시의 정신이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최흥종은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다. 그러나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살아 있다. 교회는 누구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가. 신앙은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의 아픔 곁에 서 있어야 하는가. 최흥종은 자신의 삶으로 답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신앙이다." 다음 회에서는 최흥종 사상의 핵심인 '오방(五放)'과 '화광동진(和光同塵)'을 중심으로, 왜 그가 평생 자신을 비우며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 정신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센인과 함께 울고, 손잡고, 식사하고...사람들은 그를 '성자'라 불러 "신앙은 교회 안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세상속에서 증명된다"

교회의 대 사회적 역할 강조하는 '공공신학' 개념 훨씬 이전부터 실천한 선구자

감당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흥종을 보며 이상한 사람이라고도 했고, 성자라고도 했다. 하지만 최흥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예수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믿었을 뿐이다.

한센인의 벗이 되다

최흥종 사역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한센병 환자들을 향한 헌신이

홍종은 그들 곁으로 갔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함께 식사했다. 상처를 돌보았다. 함께 울었다. 당시 사람들에게 그것은 충격적인 일이었다. 누구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사람들 곁에 최흥종은 서 있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믿었다. 병이 인간의 존엄을 빼앗을 수는 없다고 믿었

다 잘 알고 있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은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최흥종은 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로 생각하지 않았다. 교육은 사람을 깨우는 일이었다. 교육은 인간 안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운동에도 깊이 참여했다. 오늘날 광



최흥종 본선리 나한자 공동체.



광주YMCA에서 운영하던 농업실습 학교 제1회 졸업식.

“빛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업”

모든 시스템

차별화된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방송 영상 시스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사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이노파크식스틴 마동 301호
지사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B1센터 503호
H.P. 010-4138-7532 TEL 062-573-9997

- ▶ 조달청등록인증기업(최우수등급)
- ▶ 공장등록 / 직접생산증명 보유
- ▶ 음향 / 영상 공사 전문
-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 기업
- ▶ 직접 수입을 통한 설계 / 시공 / AS 까지 직접 진행
- ▶ 타업체 LED 스크린 AS 가능

실적으로, 증명합니다!

지면 하나에 다 실지 못할 정도의 수많은 실적으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으로, 교회의 환경에 최적화된 LED 스크린 시공을 제공해 드립니다. 예매의 감동을 더하는 선명한 화질과 안정적인 운영을 약속드립니다.